

서은경 교수 약력 및 주요 연구논문

■ 학력

- 1978 - 1982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문학사)
- 1982 - 1984 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석사)
- 1987 - 1989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정보학 석사)
- 1989 - 1993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정보학 박사)



서은경 교수

■ 주요 약력

- 1988 - 1990 Hazardous Wastes Research Center, 사서
- 1993 - 2025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 2005 - 2009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원장
- 2007 - 2008 한국기록관리학회 편집위원장
- 2008 - 2009 정보관리학회지 편집위원장
- 2012 - 2013 한국정보관리학회 회장
- 2013 - 2014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 관장
- 2015 - 2016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 2017 - 2020 한성대학교 상상력인재학부 학장
- 2017 - 2018 한성대학교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평가위원장
- 2021 - 2024 한성대학교 교학부총장

■ 연구 논문

- 1984. 서은경. 용어의 자동분류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1): 78-99.
- 1992. 서은경. 정보검색분야의 지적 구조와 변화에 관한 연구: 영어문화권 저자들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9(1): 55-82.
- 1993. 서은경. 구문,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한국어 자동색인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0(1): 97-124.
- 1993. 서은경. The Citedness of a Scientific Paper Written/Published in a Scientifically Peripheral Country by Worldwide Science Literature: The Case of Korea. 정보관리학회지, 10(2): 87-109.
- 1994. 김성혁, 서은경. 자동색인기 성능시험을 위한 Test Set 개발. 정보관리학회지, 11(1): 81-102.
- 1995. 서은경. 이용자 정보추구 모형에 관한 메타적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 25-28.
- 1997. 서은경, 한인구. 경영정보학분야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경영정보학연구, 7(3): 145-165.
- 1997. 서은경. 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와 JASIS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4(1): 269-291.
- 1998. 서은경, 한인구. 회계학연구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회계학연구, 23(3): 183-209.
- 1996. 서은경. A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of Academic Librarians: Comparison of the Supervisor Group and the Staff Employee Group. Journal of Social-Industrial Research, 10: 187-213.
- 1999. 서은경. Network Standards for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Digital Libraries. Journal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1: 51-70.
- 1999. 서은경. 정보검색시스템에서의 이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에 대한 분석적 고찰. 정보관리학회지, 16(4): 125-158.
- 1999. 서은경. 정보검색시스템에서의 이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6: 13-16.
- 2000. 서은경.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 관리를 위한 전략. 정보관리학회지, 17(3): 213-234.
- 2000. 서은경. OPAC시스템의 기능성 및 인터페이스 유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7(4): 187-206.
- 2001. 서은경. 인터페이스 메타포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8: 149-152.
- 2001. 서은경. 검색시스템에서 인터페이스 은유모형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8(3):

- 179-201.
- 2002. 서은경. 정보시각화에 대한 스킴모형별 비교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4): 175-205.
 - 2003. 서은경. 디지털 정보자원 보존의 위험관리 분석: 대학도서관 전자정보실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0(1): 5-29.
 - 2003. 서혜란, 서은경, 이소연.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전략. 정보관리학회지, 20(2): 241-262.
 - 2004. 서은경. 디지털 아카이브의 영구적 보존을 위한 개념적 모형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1): 13-34.
 - 2004. 서은경. 전자우편문서의 기록관리적 접근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4(1): 1-21.
 - 2004. 서혜란, 서은경, 이소연. 신뢰성 있는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4): 193-218.
 - 2005. 서은경. 디지털자원의 보존 메타데이터 요소세트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3): 233-260.
 - 2005. 서은경. 국립기록원 기록물 평가 정책 비교분석: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정보관리연구, 36(4): 1-22.
 - 2006. 서혜란, 서은경, 오경주, 이소연, 정원식. 통합적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국가기반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참조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3(1): 301-333.
 - 2006. 서은경, 정경희, 최상희.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 활용 및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1): 65-92.
 - 2006. 최상희, 서은경. Query Reconstruction for Searching QA Documents by Utilizing Structural Components. 정보관리학회지, 23(2): 229-243.
 - 2006. 서은경. 기록물 재평가 및 처분을 통한 보존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3): 35-51.
 - 2006. 서은경. FRBR 모형에 기반한 서지정보 인터페이스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4): 317-339.
 - 2007. 서은경. An Experimental Comparison on Visualization Techniques of Long Menu-List. 정보관리학회지, 24(2): 71-87.
 - 2008. 서은경, 이원경. The Access-enhanced Search Interface Designing for Korean Paintings. 정보관리학회지, 25(2): 25-48.
 - 2008. 서은경, 김희정. 국립도서관의 웹 접근성 비교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3): 345-364.
 - 2009. Eun-Gyoung Seo, Mi-Hyang Park. Designing Researcher Information Retrieval Interface based on Ontological Analysis. 정보관리학회지, 26(2): 173-194.
 - 2010. 서은경. 『정보관리학회지』 연구의 동향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7(4): 7-32.
 - 2010. Eun-Gyoung Seo. Longitudinal Analysis of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JASIST

- 1985-2009. 정보관리학회지, 27(2): 129-155.
- 2011. 김정미, 서은경. Open API를 이용한 검색확장에 대한 만족도 평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1): 281-299.
 - 2011. 서은경.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에 관한 분석적 고찰. 정보관리학회지, 28(4): 7-31.
 - 2012. 서은경, 손주영. 국내대학기록관 웹사이트에 관한 메타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9(3): 351-374.
 - 2012. 박민수, 서은경.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1): 189-207.
 - 2013. 이원경, 서은경. 장애인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웹사이트 설계. 정보관리학회지, 30(1): 191-219.
 - 2013. 서은경, 유소영. 국내 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2000-2011. 정보관리학회지, 30(4): 215-239.
 - 2014. 서은경. 국내마취통증학 분야 연구동향 분석, 2007-2011: 계량서지학 연구. 소통과 인문학, 8: 67-93.
 - 2015. 서은경, 이원경, 박은경, 이옥성. 계량정보학적 분석을 통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최근 연구 동향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3): 315-344.
 - 2015. 김지현, 서은경. 법무실무를 위한 변호사의 법률정보 추구행태 탐구. 정보관리학회지, 32(4): 1-19.
 - 2016. 서은경. 대학도서관에서의 디지털보존 실태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3(1): 269-292.
 - 2016. 이원경, 서은경. 공연예술콘텐츠 검색을 위한 패킷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 구현. 정보관리학회지, 33(2): 191-219.
 - 2016. 조용훈, 서은경. 대학 학과기록의 디지털 리포지터리 플랫폼 구축.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3): 77-102.
 - 2016. 최문정, 서은경. 서울소재 복합시설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및 인식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3(4): 77-101.
 - 2017. 서은경. 전문도서관의 디지털 큐레이션 프로세스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4(4): 247-271.
 - 2018. 심자영, 서은경. 시니어의 세대별 도서관 이용행태 비교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5(3): 288-309.
 - 2018. 서은경, 박희진. 정보문화와 조직문화 유형이 지식활용에 미치는 영향. 정보관리학회지, 35(4): 285-308.
 - 2019. 서은경, 박희진. 기록콘텐츠 기반의 아카이브 전시 활성화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1): 69-93.
 - 2021. 임수현, 서은경. 온라인 기록전시의 기능요건과 상대적 중요도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3): 119-138.
 - 2022. 박은경, 심자영, 서은경. 팬데믹을 경험한 사서들의 도서관 운영정책 중요도에 대한 인식변화: N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9(2): 325-346.

- 2023. 최재훈, 신은주, 서은경. 공공도서관의 온라인콘텐츠 현황분석 및 관리 활성화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0(4): 123-145.
- 2024. 박은경, 서은경. SDGs 관점에서의 공공도서관 지역정보서비스 발전 전략. 정보관리학회지, 42(1): 427-453.

■ 저 서

- 1995. 한국정보관리협회(이두영 등저). 정보학의 실제. 서울: 도서관협회.
- 1998. 문헌정보처리연구회(김태수 등저). 메타데이터 형식과 구조. 서울: 문헌정보처리연구회.
- 1998. 최은주, 김석영, 서은경 역. 정보기술과 도서관 정보서비스. 서울: 구미무역.
- 2001. 이용남, 이우범, 정진식, 조인숙, 서은경, 강순애, 정진택. 학술정보자원 활용. 서울: 한성대학교 출판부.
- 2008. 한국기록관리학회편(서은경 등저).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서울: 아세아출판사.
- 2013. 조인숙, 서은경, 최석두. 학위논문작성 매뉴얼. 서울: 한성대학교 출판부.
- 2023. 서은경, 최상희, 박희진, 윤소영. 디지털보존에서 디지털 큐레이션으로. 서울: 조은글터.

서은경 교수님과 함께 지난 시간과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며

최 상 희

대구가톨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해마다 삼월은 교정에 갓 입학한 앳된 얼굴들이 가득차면서 이제 또 한 해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느끼는 시기이다. 올해도 여김없이 춥고 긴 겨울이 지나고 새 학기가 다가옴에 슬슬 봄학기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성대학교 서은경 교수님께서 퇴임을 하시니 글을 하나 써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예전에는 앳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부모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이를 먹는구나 하고 느꼈었는데 이제는 나를 가르쳐주신 스승님들께서 퇴임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세월이 속절없이 지나감을 체감하게 되었다.

서은경 교수님을 처음 뵈는 것이 언젠가 하고 기억을 곰곰이 뒤져보니 세기도 다른 1999년도 연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입학하던 때가 아닌가 싶다. 지금부터 26년전 교수님 나이를 계산해보니 오늘의 나보다 십수년이나 아래이었던게 아니었던가. 기억의 왜곡이라고 말하기엔 지금의 교수님 모습이 그때 그 모습과 변한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나만 나이를 먹어간 것 같아 교수님의 퇴임이 너무 낯설게 다가온다.

박사과정 학생으로 교수님을 처음 뵈 이후 논문을 진행하면서 교수님을 박사학위 논문 주심으로 모시게 되었다. 봐도 봐도 고칠게 나오는 논문을 심사기일에 쫓기며 드리게 되면서 느꼈던 괴로움은 아직도 뒤통수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생생하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도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논문의 허술한 문제점을 콕콕 짚어주셨고 줄줄이 늘어지는 만연체를 하나하나 잡아주셨던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놀라운 일이다. 교수님이 하루라도 더 늙으셨다 생각하시게 된다면 그때 밤잠을 못 주무시게 한 내가 크게 일조한 듯 하다.

서은경 교수님과 함께 지난 시간과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며

서은경 교수님은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빠르게 나가셨고 한번 시작하신 일은 허투로 넘겨 보내는 법이 없으셨다. 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꼼꼼하셨고 논리적이셨다. 허술한 내 박사학위 논문을 구석구석 잡아 세워주셨던 것처럼.

교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문헌정보학계에서 활동을 주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보관리학회의 총무이사로부터 편집위원장, 회장까지 학회의 중요한 살림살이는 한 번씩 다 도맡아 하시면서 오늘의 정보관리학회가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셨던 것은 아마 정보관리학회에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다 아는 일일 것이다. 또한 KOICA 국제프로젝트로 남미와 몽골 도서관을 지원하러 팀을 꾸려 떠나실 때 도서관 원정대장 같으셨던 것도 잊기 쉽지 않은 모습이다. 화수분처럼 마르지 않던 선생님의 에너지를 보며 나의 게으름을 닦아세우게 돼서 그나마 뒤를 이어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되면서 12월 첫 눈이 내리던 날 교수님께서 대구에 오셨던 기억이 난다. 그때 계산성당에서 빨강계 열린 열매위로 흰 눈이 소복히 쌓인 풍경을 핸드폰으로 찍으시면서 너무 예쁘다를 연발하실 때는 간데없는 소녀감성이셔서 예전에 봤던 원정대장님은 어디가셨나 하고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그런데 1년인가 2년이 지난 후 교수님 연구실을 방문했더니 본인이 그리셨다고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때 첫 눈 내린 계산성당이 선생님 손끝에서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또 이렇게도 기를 죽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었다.

그 많은 일을 하시면서 또 언제 이런 그림을 배우고 그리시는 시간을 내시는지 교수님의 하루는 멀티버스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학교에서 이런 저런 일을 하다 보니 교수님께서 워라벨을 맞추시려고 노력하신 것이었구나 그제 나한테도 정말 필요한 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었다. 난 그래도 따라갈 길이 보이니 참 행운이다. 비록 교수님보다는 좁은 길에서 천천히 가고 있지만 이 방향이 맞을 거라는 믿음은 선생님과 함께 한 20여년간의 시간에 뿌리를 두고 있어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두서없이 교수님의 퇴임을 생각하며 글을 적어 내려가면서 다시금 드는 마음은 참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것이다. 퇴임 후에도 어떻게 하루를 짝 차게 보내시며 또 무슨 모습을 보여주시어 나를 놀라게 해주실 지 기대가 된다.

2025년 3월 청출어람이 되지 못한 제자 최상희

공부하는 학회의 본 모습을 키워주신 선배님

이 재 윤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학회(學會)’의 정의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니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더욱 발전하게 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이라고 한다. 아마도 영어의 ‘learned society’를 동양권에 서 번역하면서 생긴 말인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공부하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뜬금없이 학회의 정의를 사전에서 찾은 이유는, 서은경 교수님의 정년퇴임에 즈음해서 다시 되새기고 싶은 얘기가 한국정보관리학회 회장으로서 교수님의 공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은경 교수님께서 2012년부터 2년 간 한국정보관리학회 회장을 맡으셔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 바로 공부하는 모임으로서 한국정보관리학회의 혁신이었다. 학회 총무이사를 맡아서 활동하던 때부터 학회에 대한 애정어린 고민을 계속 하시던 서은경 교수님께서 회장을 맡게 되면서 이사진들과 상의하여 일련의 개혁 조치를 시행하였다. 첫째는 여름학술대회에서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튜토리얼 실시, 둘째는 데이터 분석기법의 응용을 2년 연속 주제로 하여 추계학술발표회 개최, 셋째는 정보관리 강좌의 폐지와 동계 1박2일 워크숍 개최가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공부하는 모임으로서 학회원들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기회가 바로 여름 학술대회에 새로 추가한 튜토리얼 세션이었다. 이전에는 여름학술대회에서 학술발표만 진행해왔다. 하지만 당시 서은경 회장님께서 학회원들이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학회 발전에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이사진을 설득한 끝에, 2012년 학술대회와 2013년 학술대회에서는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튜토리얼을 마련하게 되었다. 2012년에는 “연구 디자인, 그 지평을 넓히다”를 테마로 하여 질적, 혼합적 연구방법론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는 튜토리얼을 명지대 권나현 교수님께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당시만 해도 우리 문헌정보학계에서는 질적, 혼합적 연구방법론이 다소 소극적으로 수용되고 있었다. 그 핵심 내용을 실제 연구 적용 사례를 통해 소개한 튜토리얼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문제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특정 방법론적 틀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지평을 확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 다음해에는 양적 연구방법 중 당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한 네트워크분석 기법에 대한 튜토리얼을 마련하여 부산대 이수상 교수님이 네트워크분석 이론 부분을 맡고 내가 네트워크분석 실습 부분을 맡아서 진행하였다.

학술대회 튜토리얼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학회 회원들의 연구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면, 새로운 연구기법의 확산을 본격적으로 도모한 것은 데이터 분석기법의 응용을 2년 연속 주제로 하여 추계 학술발표회를 개최한 것과, 네트워크분석 기법과 관련된 1박2일 동계워크숍을 2012년부터 시작한 것이다. 당시 빅데이터가 모든 분야에서 핵심 트렌드로 부상한 상황에서 정보관리 분야가 오히려 뒤쳐질 것을 고민한 서은경 교수님은, 데이터분석을 다양한 정보관리 현장에 응용하는 것을 주제로 하여 2년 연속 추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하도록 주도하셨다. 이는 정보관리학회가 현장의 문제를 최신 기법을 통해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학회로 자리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한편 전문직단체의 자체 교육행사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현장 사서의 참여가 점차 감소해오던 정보관리강좌에 대해서도 서은경 교수님은 과감히 폐지할 것을 결정하셨다. 강좌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여름 튜토리얼과 더불어 겨울 워크숍 행사까지 추진하게 되었다. 그에따라 2012년부터 부산 해운대에서 매년 2월에 정보관리와 네트워크분석 워크숍을 1박2일로 개최하게 되었다. 이 행사는 원래 2009년부터 KISTI가 주최하던 계량정보분석포럼을 변형하여 부산대 이수상교수님과 내가 부산 씨클라우드호텔에서 열었던 행사였다. 2~30명 수준으로 진행해오던 워크숍을 서은경 회장님의 격려를 받으며 한국정보관리학회 연례 워크숍으로 격상하여 진행한 결과, 대학원생과 정보관리 실무자 위주로 70명이 넘게 참석하는 1박2일의 풍성한 워크숍이 되어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그때 참석한 대학원생들에게는 호텔 숙박과 청사 포 조개구이 식당에서의 저녁 회식이 공식적으로 제공되어 학문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즐거운 경험이었다. 다음날 아침에 숙취를 안고 일어난 대학원생들에게는 서은경 회장님께서 비공식적으로 해운대 초원복국에서 시원한 복국 조식을 사주신 덕분에 나도 함께한 대학원생들과 참가자들에게 면목이 섰던 기억이 있다.

이처럼 서은경 회장님께서 학계의 동향과 회원의 수요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공부하는 모임으로서의 학회가 성장하도록 노력한 결과, 이듬해부터 정보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은 이전보다 학계의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단적으로 KCI에서 발표하는 통시적 영향력지수 4년(특정 연도에 발행된 논문이 이후 4년 동안 인용된 평균 횟수) 값을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게재된 논문들의 평균 인용수준은 상위 25% 내외 정도였는데, 2013년에 게재된 논문은 상위 4.1%, 2014년에 게재된 논문은 상위 4.6% 정도로 KCI 전체에서 최상위 수준의 영향력을 보였다. 시대적인 추세를 읽고 적실한 연구방법 확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한 결과가 학회 회원들의 연구 영향력을 크게 향상시킨 결과로 돌아온 것이다.

대학 후배로서 개인적으로 서은경 교수님께 학문연구와 사회생활 등 모든 측면에서 크게 도움받은 일이 너무도 많았다. 하지만 짧은 지면에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공적인 학회 회장으로서의 활약상만 몇 가지 되짚어보게 되었다. 물론 서은경 교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까지 교수님의 멋짐을 설명하기에는 이 정도로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교수님을 뵙고 잠시라도 함께 했던 분이라면 굳이 더 침언하지 않더라도 교수님을 존경하는 나의 마음을, 정년퇴임을 크게 아쉬워하면서도 깊이 축하드리는 마음까지도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퇴임하신 이후에는 후배들 걱정은 줄이시고 더 멋진 인생을 더 건강한 모습으로 즐기시기를 기원합니다.